2020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0주년 학술대회 MBC 세션
<온라인 성폭력 범죄 보도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토론문
강보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이 발제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언론이 갈수록 중요한 사회적 감각으로 조망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내포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비판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를 듣고 전반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 보도에 있어 용어 사용부터 정립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디지털 성범죄’, 2017년 소라넷 관련 문제 제기 과정에서 여성운동 내에서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발제자가 이전 연구에서부터 사용하는- ‘일상생활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언어를 매개로 하는 젠더 폭력’ 을 지칭하는- ‘온라인 성폭력’ 에 이르기까지 여러 용어 또는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며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특정 용어의 사용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어떻게 용어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특정 용어의 반복적인 사용이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아래 파생되는 인식의 여러 맥락, 혹은 그 스펙트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럴 때, 언론의 역할은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구조의 문제

발제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 보도’ 에 있어 단발적이고 표피적인 요소를 사회로부터 박리시키는 보도행태를 성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해당 사안이 갖는 사회적인 맥락을 되살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일면 무력감을 토로하거나 냉소하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언론보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 한국 언론이 처한 정치경제적 국면/지형 안에서 구조의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바람인가?” 과 같은 질문에 대해 선뜻 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성폭력 보도에서 구조의 문제를 보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우

선 보도에 있어 구조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언론과 대중 모두 ‘원인과 결과’가 모두 설명되는 인과관계에 들어맞는 서사구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 다층적이고 복잡적이기 마련인데요. 뉴스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비효율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뉴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잡한 구조의 문제와 자신의 일상을 쉽게 연결 지을 수 없다면 그리 시급한 뉴스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온라인 성폭력 보도에 있어 구조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언론사 내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날 많은 언론사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미디어경영의 관점이 기사 편집의 과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만의 특수한 디지털 언론 시장 구조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포털이 중심축이 되는 디지털 언론 시장에서 언론사들이 구조의 문제를 보도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장기적인 정치경제학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언론사라면 이러한 변화가 더 더욱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언론’, ‘포털’, ‘사법부’, ‘대중’이라는 네 개의 꼭짓점이 만나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계기를 점진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활동(운동), (사례)연구 및 교육, 가이드라인, 사법·행정·입법의 변화가 연쇄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행위자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을 촉발하는 것과 만나는가?

구조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 발제에서 힌트를 얻어 보자면 사안의 역사화 또는 맥락화와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사안이 역사화되고 맥락화되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에 있어 저널리스트의 다층적인 방법론이 함께 시도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탐사보도 방식과 ‘누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였는가?’를 살피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방식을 상보적으로 운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은 여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화되기에 어려울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저널리즘 영역에 요청되어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발제에서 “온라인 성폭력 문제는 현실 공간의 성 착취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중요” (13쪽)하고, “사회적 낙인, 사회적 평판”이 “피해자의 고통으로 연결” (14쪽)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온라인 성폭력 보도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문제의식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 및 언론보도의 중점이 변화하는 현실과 가장 크게 피리를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의 범죄는 ‘경제적, 물리적 가해’에서 ‘정신적, 비물리적 가해’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

분이 ‘성인지 감수성’이 전제하는 현실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